

# 제주 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다문화 정책 실태에 관한 연구\*

김영순\*\*.이미정\*\*\*.최승은\*\*\*\*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현황
- V. 다문화 정책 현장 분석
- VI. 결론

## 국문요약

세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국가 간 이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다문화’ 열풍으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들이 다문화 정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다문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제주 지역의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문화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현황을 다룬 문헌들을 살펴보고, 다문화센터 관계자와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임(No. NRF-2013R1A2A2A04013571).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강의전담 교수.

\*\*\*\*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박사과정.

이를 통해 제주 지역의 다문화 정책을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세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내용적 측면의 문제점에는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의 부재, 수요자들의 낮은 접근성 및 참여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부족이 있었다.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에는 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업무과다, 통합적 교육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다문화 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다문화 정책을 넘어서 제주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

## I. 서론

최근 거주외국인의 시도별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3년의 거주외국인 증가율이 전국이 2.6%인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21.6%라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sup>1)</sup>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 평균의 거의 10배가 되는 거주 외국인의 증가에 걸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은 어떤 수준일까라는 의구심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전체 외국인이 아닌 결혼이민 여성을 위한 다문화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인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이라 함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여성 중 국제결혼형태로 들어온 여성들을 말한다. 이들의 존재는 현재 한국사회의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지속된 가족계획과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적령기 여성이 절대적으

1) 통계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oman.je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303&ebcf\\_id=WOMAN\\_MARRY&page=1&year=2013&month=11&day=2&board\\_id=WOMAN\\_MARRY&write\\_method=common&neti\\_sess=&eb\\_seq=241865](http://woman.je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303&ebcf_id=WOMAN_MARRY&page=1&year=2013&month=11&day=2&board_id=WOMAN_MARRY&write_method=common&neti_sess=&eb_seq=241865)

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상황이며, 게다가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여성들은 농어촌에서 생활하기를 꺼려하면서 결혼이민여성들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sup>2)</sup>

이와 같은 결혼이민여성의 등장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들 중 몇몇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 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징에 대한 분석<sup>3)</sup>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평균내용과 더불어 지역별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주 지역 주민들의 인식 조사<sup>4)</sup>는 제주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수용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제결혼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해온 아시아 출신 여성들의 연구<sup>5)</sup>에서는 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여성들의 삶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주 사회와 결혼이민여성 간의 문화적 대면관계의 현실을 드러내었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 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sup>6)</sup>에서는 교육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와 시민단체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논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토대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향후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현실성을 제고해 나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7)</sup> 미래지향적 측면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진행하는 현재의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실

2) 염미경·김규리 『제주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주, 딜레마와 적응』, 『지역사회학』 제9권 제3호, 2008.

3) 장승심,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제41호, 2012.

4) 강준혁·남진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1권, 2012.

5) 염미경·김규리 『제주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주, 딜레마와 적응』, 『지역사회학』 제9권 제3호, 2008.

6) 오고운·김성봉,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탐라문화』 제39호, 2011.

7) 김민호·오성배,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2011.

태와 이로 파생된 과제를 살펴보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위한 범문화 사회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sup>8)</sup>

위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다문화 정책, 제주 지역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실태에 관한 현황 기술에 치중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 수행 기관의 프로그램 분석은 물론 다문화센터 관계자와 정책 수혜 대상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을 직접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이해교육을 넘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제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제주의 특수성에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제주라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문화교육의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우리와 다른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외국의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 정책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사회의 특징에 맞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즉, 지역성에 기반을 둔 다문화 정책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사회 통합과 한국적 현실에 맞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sup>9)</sup>

한국 사회의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면,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활성화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연대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이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sup>10)</sup>

8) 황석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제35호, 2009.

9) 김영순, 『이민자 통합을 위한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연구: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FGI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3권, 2010.

10) 김민호·오성배,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제주국제자유도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 지역의 다문화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결혼이민여성을 위하여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제주 지역의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 기관들의 다문화 현황은 어떠한가. 2) 제주자치도의 다문화 정책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4장에서, 두 번째 연구 문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 정책의 개념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 정책은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동등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다.<sup>11)</sup> 문화적 다양성과 관계를 맺는 구체적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은 정부의 인종적 다양성 혹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입법과 집행이다.<sup>12)</sup> 그리고 다문화 정책이란 모든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가 효과적으로 유지·운영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공하고, 학교, 병원, 법원 등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모든 참여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sup>13)</sup>

---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2011.

- 11) Troper, H.·Weinfeld, M., *Ethnicity, Politics, and Public Policy: Case Study in Canadian D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 12) Mahtani, M., "Interrogating the Hyphen-Nation: Canadian Multicultural Policy and 'Mixed Race' identities", *Social Identities: Journal for the Study of Race, Nation and Culture*, Vol. 8 Issue 1, 2002.
- 13) Inglis, C., *Multicultural education in Australia: Two generations of evolution*. In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edited by:

다문화 정책을 타문화 수용방식에 따라 구분하면 차별배제 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나타난다.<sup>14)</sup> 차별배제 모형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적 대우를 통해 국가나 사회가 원하지 않는 이민자의 이민 가능성을 차단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소수집단의 제거 또는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국가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문화적으로도 타문화와 분리·배제를 시도한다. 동화주의 모형은 이민자가 자국민이 되는 것을 전제로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민자가 출신국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여 주류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소수자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수민족이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획득한다는 설득도 가능하지만, 국내 빈곤 계층과의 형평 문제, 재정 부담, 사회적 부담이 문제시될 경우에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다문화 정책 포기 선언 등은 프랑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다문화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2. 한국 정부의 다문화 정책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 관련 주관부서들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다문화 정책의 총괄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이민행정(출입국, 이민, 귀화)과 외국인 인권보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외국인력정책은 노동부, 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이민자 2세 교육은 교

---

Banks, J. A, New York: Routledge, 2009.

14) Castles, S.·Miller, M. J.,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육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사업과 지원센터 지원은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의 생계, 의료, 주거, 건강보험 등의 복지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교육 정책이다. 국제결혼자는 이민 1세대로 사회교육 대상이며,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한국인으로 학교 교육의 대상이다. 한국 다문화교육에서 사회교육은 여성가족부, 학교교육은 교육부가 주로 담당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위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두고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며, 주요 대상은 국제결혼 다문화가족이다.<sup>15)</sup>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에 관한 다문화교육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그래서 여러 정부 부처 중에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과 교육부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다문화센터 운영’이다.<sup>16)</sup>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센터 운영은 가족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사업 등이 있다.

교육부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교육 정책’으로 일컬어진다. 2006년 5월 교육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실시한 이후, 매년 명칭은 조금씩 다르나 이와 같은 대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現교육부)는 서울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센터’를 ‘중앙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시·도 교

15) 황갑진,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2011.

16) 여성가족부 정책가이드에 제시된 내용이다.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

육청을 중심으로 대학, 지자체, NGO, 언론사 등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로 ‘다문화교육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세부사업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참여기관 중 대학 등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 ‘시·도 다문화교육 센터’로 지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2008년에는 중앙다문화센터를 통하여 학교 다문화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초급교재를 발간하였으며, 지도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sup>17)</sup>

2009년에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개발의 지원하고, 교대 등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하였으며,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였다. 2010년에는 교대와 사범대의 대학생과 교사연수지원을 위한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과 활용, 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sup>18)</sup>

한국사회에서 상당수 이주민들은 빈곤에 따른 차별과 배제, 차별과 배제에 따른 빈곤, 교육과정에서의 차별과 배제 등으로 피차별 소수자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합의 도출과 이민국가에 대한 장기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편중되고 왜곡되어 있는 다문화 정책이 아니라 균형적이고 사회통합적인 다문화 정책 마련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체류외국인에 대한 우리 문화의 이해와 수용과 더불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인종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 정책, 행정 및 교육에 관한 통합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7) 서범석,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학교다문화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초등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2009.

18) 황갑진,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1.



###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의 경우 제주지역의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통해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심층면담의 경우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이민여성과 제주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센터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주 지역의 센터 관계자들과 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센터 관계자 4명과 결혼이민여성 6명으로 총 10명이며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개요

구분	부호	대상
그룹 A (운영자 집단)	A-01	‘가’센터 센터장
	A-02	‘나’센터 센터장
	A-03	‘다’센터 팀장
	A-04	‘다’센터 센터장
그룹 B (수혜자 집단)	B-01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나’센터)
	B-02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나’센터)
	B-03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나’센터)
	B-04	중국 출신 결혼이민여성(‘가’센터)
	B-05	필리핀 출신 결혼이민여성(‘가’센터)
	B-06	몽골 출신 결혼이민여성(‘가’센터)

연구 참여자 그룹 A는 센터 관계자는 1년 이상 센터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센터 운영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룹 B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에 거주한지 1년 이상, 한국어 의사표현에 큰 어려움이 없는 여성들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센

터 관계자는 연구 참여자 A-01, A-02, A-03, A-04로 표기하고, 결혼이민여성은 연구 참여자 B-01, B-02, B-03, B-04, B-05, B-06으로 표기하였다. <표 1>의 인터뷰 대상에 대한 인터뷰 일시와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개요

구분	일시	장소	대상
1차	2011. 10. 12	센터 내 사무실	A-01, B-04, B-05, B-06
	2011. 10. 13		A-02, B-01, B-02, B-03
2차	2013. 08. 06	센터 내 사무실	A-02, A-03, A-04
	2013. 08. 07		A-01

<표 2>와 같이, 1차 인터뷰는 2011년 10월 12~13일, 2차 인터뷰는 2013년 8월 6일~7일에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 별로 1~2회, 회기당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면담을 진행하며, 그 외 예피소드나 사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을 하였다. 질문지 구성은 다문화 정책의 유형 중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을 채택하여 정책 수행자와 정책 수혜자로 나누어 대상을 선별하였다. 다문화주의 모형은 사회통합의 개념이 동화가 아닌 공존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목표로 한다. 이에 현재 제주 지역의 다문화 정책이 올바른 다문화주의를 실현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센터 관계자들에게는 센터의 운영, 교육대상,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다문화 정책 수요자로서 제주에서의 가족, 이웃, 센터와의 관계성과 다문화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에 대한 경험과 요구사항을 알아보았다.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신규 센터에 대해서는 센터의 소개와 특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미 한 차례 방문하여 면담을 한 두 곳의 센터에는 그간의 변화를 중점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제주 지역 내의 센터 간의 네트워크와 어떠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 대상에 대한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심층면담은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다문화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족, 이웃, 센터와의 관계를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이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실제적 삶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이 총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또한 센터에 미리 공문을 보내어 연구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다. 면담 장소는 주로 센터 내 사무실로, 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다. 면담을 하는 동안에는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면담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장 기록과 메모가 함께 면담 시 이루어졌으며, 면담 후 녹음 내용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연구자가 필사하였다. 필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sup>19)</sup>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한 후 주제, 주제 모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즉,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주제(theme)는 연구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19) Colaizzi, P.,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M.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이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개별성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분석 결과는 공통적 속성을 도출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sup>20)</sup> 본 연구는 이 방법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정보를 보호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 심층 면담에서 개별적인 심층적 이해와 함께 소수 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방법을 차용하였다.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다문화센터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6개의 주제로 구성하여 다문화 정책을 범주화하여 기술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 IV.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현황

##### 1. 제주 지역의 다문화 인구 현황

정부가 2001년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역이 되었다. 이 시기에 맞춰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가족 등이 제주로 급속한 이주가 진행되었다. 또한 2005년도에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자율성을 이양 받게 되었다.<sup>21)</sup>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거주 외국인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다음 <표 3>은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인 주민 연도별 증감 현황<sup>22)</sup>이다.

20) 김분한·김금자·박인숙·이금재·김진경·홍정주·이미향·김영희·유인영·이희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6호, 1999.

21) 황석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제35호, 2009.

2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의 결혼이민자정보 웹사이트의 외국인 주민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통계자료를 출처로 한다. [http://woman.jej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303&ebcf\\_id=WOMAN\\_MARRY&page=1&year=2013&month=11&day=2&board\\_id=WOMAN\\_MARRY&write\\_method=common&neti\\_sess=&eb\\_seq=241865](http://woman.jej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303&ebcf_id=WOMAN_MARRY&page=1&year=2013&month=11&day=2&board_id=WOMAN_MARRY&write_method=common&neti_sess=&eb_seq=241865)

<표 3>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인 주민 연도별 현황(단위: 명)

구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전년대비 증가수 (증가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7년	4,015	2,156	1,859	2,694	1,392	1,302	1,321	764	557	1,370 (51.8%)
2008년	5,052	2,719	2,333	3,372	1,702	1,670	1,680	1,017	663	1,037 (25.8%)
2009년	6,944	3,675	3,269	4,887	2,499	2,388	2,057	1,176	881	1,892 (37.5%)
2010년	7,343	3,781	3,562	5,195	2,606	2,589	2,148	1,175	973	399 (5.7%)
2011년	8,499	4,371	4,128	5,925	2,934	2,991	2,574	1,437	1,137	1,156 (15.7%)
2012년	10,406	5,533	4,873	7,119	3,615	3,504	3,287	1,918	1,369	1,907 (22.4%)
2013년	12,656	6,798	5,858	8,518	4,326	4,192	4,138	2,472	1,666	2,250 (21.6%)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의 거주 외국인이 2007년 4,015명에서 2013년에는 12,656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거주외국인 12,656명 중에서 남성은 6,798명, 여성은 5,858명이다. 지역별로 제주시에는 8,518명, 서귀포시에는 4,138명으로 제주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2012년에 비교해 보면 2013년에는 21.6%의 외국인 주민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서울은 오히려 거주외국인 수가 감소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 지역이 3.7%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의 급증과 결혼이민여성의 증가로 인한 제주 지역의 인구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총 583,713명의 주민이 주민등록인구로 집계되는데 그 중에서 거주외국인 총 12,656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들은 총 2,423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0.42%에 해당한다.<sup>23)</sup>

23) 통계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의 결혼이민자정보를 참조하라. [http://woman.je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303&ebcf\\_id=WOMAN\\_MARRY&page=1&year=2013&month=11&day=2&board\\_id=WOMAN\\_MARRY&write\\_method=common&neti\\_sess=&eb\\_seq=241865](http://woman.je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303&ebcf_id=WOMAN_MARRY&page=1&year=2013&month=11&day=2&board_id=WOMAN_MARRY&write_method=common&neti_sess=&eb_seq=241865)

## 2. 제주 지역의 다문화교육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교육의 정책은 2007년의 ‘외국인거주지원조례’와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 힘입어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 확산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한 이 조례들을 바탕으로 2010년 1월 21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 내·외의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며 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과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제주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은 정부의 정책과 지원 법률, 제주지역의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인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 자녀의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 이해 증진의 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sup>24)</sup>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업무계획에서 추진목표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국정과제인 ‘외국인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실현,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포용분위기 확산으로 질 높은 사회통합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다문화교육 정책과 사업 진행은 도교육청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면 역시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과 사업에 근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 유관기관·단체와 교육지원 협력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학교별 다문화 상담실 운영, 한국어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사례집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sup>25)</sup>

2013년 현재 결혼이민여성은 2,423명으로 제주 인구에 0.42%를 차지하지만,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2세, 3세들은 머지않아 제주 지역의 시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현황<sup>26)</sup>은

24) 오고운·김성봉,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탐라문화』 제39호, 2011, 104쪽.

25) 황석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제39호, 2009.

26) 제주시교육지원청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www.jjse.go.kr/new\\_sub05/investment.php#flag\\_contents](http://www.jjse.go.kr/new_sub05/investment.php#flag_contents)

<표 4>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국제결혼 가정	85	95	76	68	50	48	53	390	43	28	22	93	13	10	7	30	598
외국인 가정	9	7	3	4	2	3	2	21	1	4	1	6	0	0	0	0	36
합계	94	102	79	72	52	51	55	411	44	32	23	99	13	10	7	30	634

<표 4>와 같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교육은 크게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된다. 학교의 다문화교육은 보육시설을 포함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에서 이루어진다. 학교 밖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교육기관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제주 지역 다문화교육기관(학교)

제주시	서귀포시
보육시설(373개), 유치원(67개), 초등학교 (61개), 중학교(27개), 고등학교(18개), 특수학교(2개), 대학교 (4개)	보육시설(129개), 유치원(42개), 초등학교 (45개), 중학교(15개), 고등학교(12개), 특수학교(1개), 대학교(1개)

<표 5>와 같이, 제주 지역 전체에는 보육시설 502개, 유치원 109개, 초등학교 106개, 중학교 42개, 고등학교 30개, 특수학교 3개, 대학교가 5개가 있으며, 이러한 학교들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6> 제주 지역 다문화교육 기관(공공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제주이주민센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사회종합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서귀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서귀포이주민센터),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표 6>과 같이, 제주 지역 전체에는 다문화교육센터 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 이주민센터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 사회복지관 4개, 주민자치센터가 2개 있으며,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밖에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 기관은 제주시에 이주민 단체에서 운영하는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외국인센터, 국제가정문화원, 제주다문화가정센터와 이주민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주YMCA, 제주국학평화봉사단이 있다. 반면, 서귀포시에는 서귀포이주민센터만이 이주민 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교육 기관 중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고 센터 관계자들을 인터뷰하여 3곳의 센터를 비교·분석하였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지정하여 직영하는 기관이다.

### 1)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폐교된 제주시 소재 구 조천 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4월 개관하였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도 오래 걸리지만, 폐교를 활용하여 효율성 있는 교육 시설을 갖추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한글·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초학력 도달과 함께 학력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초·중·고 학생들에게 세계 각국의 문화 체험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개최된 가족캠프에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힐링캠프’라는 주제로 학교 운동장에서 캠프를 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교육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문화가정 자녀뿐 아니라 그들의 학부모, 일반 학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을 교육·문화·특성화 사업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제주다문화교육센터의 프로그램

교육사업	문화사업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글교육프로그램</li> <li>-센터운영 한글교육</li> <li>-학교운영 한글교육</li> <li>▶다문화이해교육</li> <li>-유·초·중등학교 학생 대상</li> <li>▶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li> <li>▶취학 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li> <li>-다문화 담당교사 연찬회</li> <li>-다문화가정 학부모 입학 설명회</li> <li>▶다문화교육 교원 직무연수</li> <li>-초·중등 일반교사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즐거운 다문화가족 한마당</li> <li>-다문화가정, 일반가정, 다문화교육관련자, 지역주민 대상</li> <li>▶다문화 요리체험 교실</li> <li>-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학부모와 학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들뜰 다문화 예비학교</li> <li>-중도입국 문화가정 및 외국 인근로자 자녀 대상</li> <li>▶부모와 함께하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li> <li>-다문화가정 학부모와 학생</li> <li>▶다문화가정 청소년 캠프</li> <li>▶다문화 정보실 운영</li> <li>-다문화 도서관</li> </ul>

## 2)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되어지다 서귀포시에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2010년 4월에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할지역도 제주시로 한정하였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취업연계 및 교육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지원 등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교육·문화·특성화 사업으로 정리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교육사업	문화사업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교육</li> <li>▶다문화가족통합교육</li> <li>-가족통합교육</li> <li>-다문화이해교육</li> <li>▶다문화가족취업연계 및 교육지원</li> <li>-직업 기초소양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li> <li>-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시설 돕기</li> <li>▶다문화가족 자조모임</li> <li>-출신국 별, 통합국적 모임 -가족통합, 부부 모임</li> <li>▶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li> <li>-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li> <li>▶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li> <li>-필리핀어(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기관과의 취업연계</li> <li>▶방문교육 서비스</li> <li>-한국어교육</li> <li>-부모교육</li> <li>-자녀생활서비스</li> </ul>	<p>회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영재 교실사업</li> <li>-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li> <li>-다문화가족자녀 외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 및 일반 가정 자녀</li> </ul>
--	-------------	---

### 3)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10년 4월 서귀포시에 개관한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 지정 공공기관이다. 한국어교육과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등과 같은 기본사업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상담사업에 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적 불안, 우울증, 조울증, 대인관계 기피 등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부부갈등 및 성(性)문제, 성격차이, 이혼 등의 부부 상담, 시부모와의 갈등, 그 밖의 가족들과의 불화에 대한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교육·문화·특성화 사업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교육사업	문화사업	특성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교육</li> <li>-집합교육</li> <li>-방문교육</li> <li>-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읍면 지역</li> <li>▶다문화가족통합교육</li> <li>-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li> <li>-방문부모교육서비스</li> <li>-방문자녀생활서비스</li> <li>▶다문화가족취업연계 및 교육지원</li> <li>-취업기초소양교육</li> <li>-취업처 및 네트워크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맘'</li> <li>▶다문화가족 자조모임</li> <li>-결혼이민자 자조모임</li> <li>-다문화가족 자조모임</li> <li>▶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li> <li>-다문화가족자녀 언어평가</li> <li>-다문화가족자녀 언어교육</li> <li>-상담</li> <li>▶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li> <li>-다문화가족센터 내 업무</li> <li>-외부 파견 업무</li> <li>-베트남어, 필리핀어(영어), 캄보디아어, 중국어</li> <li>▶엄매(아빠)나라 언어습득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li> <li>-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li> <li>-다문화가족자녀 외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정 자녀</li> </ul>

이상의 3곳은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의 기본사업 방안과 프로그램 매뉴얼을 꼭 이행해야하고, 이에 따른 통제와 평가도 따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센터 관계자들의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센터 운영상의 고충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V. 다문화 정책 현장 분석

다문화 정책 현장 분석은 정책 수행자인 센터 운영자들과 정책 수혜자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이 인터뷰 결과를 크게 센터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1. 내용적 측면

#### 1) 지역특수성 반영의 부재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역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모두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다. 제주만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제주 사회 적응을 더디게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끼치는 제주특별자치도 방언에 대한 이해 교육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언어 발달도 숙고해야할 문제이다.

제주 여성들은 생활력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이민여성들도 마찬가지구요.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 양육은 주로 시어머니가 하고 있어요. ... (중략)... 이 곳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특히 언어가 문제예요. 엄마의 언어인 모어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주도 방언으로 언어적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연구 참여자 A-02. 2013.08.06.)

센터는 정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중략)…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우선 잘 해야 좋은 평가를 받아 운영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연구 참여자 A-01. 2013.08.07.)

센터들은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 매뉴얼을 이행해야 하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참여자 A-02와 A-01은 제주의 특별한 상황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거나 다른 지역의 다문화센터와의 차별성을 갖추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언어의 문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특한 방언이 있음에도 제주어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온 지 6년 되서 지금은 한국말 좀 해요. 근데 처음에는 병어리로 살았어요. 또 제주말은 못 알아듣잖아요. (중략) 친구들이 제주도말로 ~행, ~짱, 이러는데 …(중략)… 제주말 열심히 배워서 4개월 만에 제주말 하기 시작했어요. 제주 토박이처럼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많이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제주말 못 알아들어요.

(연구 참여자 B-04. 2011.10.12.)

제주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 사회적응 과정에서 다른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에 비해 문화와 언어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중에 많이 언급된 내용은 ‘제주도의 언어, 음식, 날씨’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인에게도 낯설고 어려운 제주 방언은 결혼이민여성에게 한국어와 함께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 B-04는 제주에서의 초기 정착 생활 중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거의 ‘병어리’처럼 살았다고 이야기하며 그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이해교육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준어 교육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어 교육인 경우 표준어를 기준으로 교육하고 있어 결혼이민여성들이 제주 지역

만의 독특한 방안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거주외국인의 구성이 결혼이민여성 뿐 아니라 유학생과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및 사업가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또한 국제관광지로써 외국인의 방문 횟수도 많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제주 지역의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확실적인 다문화 정책이 아닌 지역의 상황과 특성이 반영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 수혜자들의 낮은 접근성 및 참여도

제주시에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서귀포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만 많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하려는 의지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육지에서 한 시간 내외는 그리 큰 시간이 아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섬에서의 한 시간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로 인식되어져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교육센터의 경우 잘 정비된 교육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가 없으면 접근하기가 많이 힘든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여성들과 남편들도 생업 때문에 시간을 내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모으는 방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차로 한 시간 이내에 사는 학생들은 많지만 제주도에서는 한 시간은 꽤 먼 거리거든요.

(연구 참여자 A-03. 2013.08.06.)

결혼이민여성들 뿐 아니라 남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시내에 사는 분들은 그래도 오시지만, 시외 쪽에 사는 분들은 오기 힘들어 해요.(중략) 접근성도 어렵고, 농촌지역의 일꾼 인력으로 결혼이주가 많아졌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해서 센터 교육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도 함께 나와서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연구 참여자 A-01. 2013.08.07.)

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진행하려고 하여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나 호응도가 높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교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 특성상 차로 한 시간 정도 거리면 아주 먼 거리로 인식되어져 센터 방문도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 참여자 A-03은 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다문화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지만, 지리적 특성과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인해 센터의 이용자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여성과 가족들이 생업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는 센터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A-01의 지적처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석 자체가 어려운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부족

각 센터마다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통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지역 내 센터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벤트 성격을 갖는 다문화 축제는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었고, 일반 시민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관련 행사를 진행 할 때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일시적입니다. 봉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있긴 한데, 어떤 행사를 하면 그 행사 때에만 도와주십니다. 지속적이거나 정기적인 관계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연구 참여자 A-01. 2013.08.07.)

다문화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에는 일반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도 매년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화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있지만 심도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A-04. 2013.08.06.)

연구 참여자 A-01과 A-04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다문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일시적이고

단순한 문화 체험에 그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 체험을 통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통하여 현재의 다문화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수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넘어선 일반 시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외국 사람이라고 많이 쳐다 보구... 옛날엔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왜, 나도 사람인데, 왜 그렇게 보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연구 참여자 B-03. 2011.10.13.)

물건 구입할 때는 주로 재래시장이나 마트를 이용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물건을 반품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잘못 구입해서 실수할 때가 많지만 그냥 참아요. 옷을 바꾸고 싶은데 미움 받을까봐 그냥 입어요. 미안해서 교환하지 못하겠어요.

(연구 참여자 B-01. 2011.10.13.)

연구 참여자 B-01과 B-03 뿐 아니라, 인터뷰 전반에 걸쳐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일반 시민들은 아직 이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특별한 대상으로 강조하여 분리하기 보다는 모두가 동등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똑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2. 운영적 측면

### 1) 전문 인력의 부족 및 업무과다

센터 관계자들은 다문화센터의 운영에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현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행정

업무와는 달리 상담의 경우는 전문 상담가가 필요함에도 그에 맞는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센터의 존재 이유는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아픔을 알고, 그들이 속마음을 털어 놓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그들을 위한 마인드는 있지만,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부분 행정적인 업무죠. 전문적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략)센터의 목표는 Healing, Sustaining, Guiding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지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 A-02. 2013.08.06.)

센터를 운영하려면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 작성이 필요하죠. 그러면 직원들 업무량은 또 더 많아집니다. 직원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없이 일해요.

(연구 참여자 A-01. 2011.10.12)

상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상담 기능은 센터에서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서 상담내용이 들어와도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담사 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A-04. 2013.08.06.)

연구 참여자 A-01, A-02, A-04의 공통적인 의견은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함은 물론 다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참석하는 것이 어렵고, 섬 지역 특성상 외부에서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센터 직원들은 막중한 업무로 인해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지 못 하였다. 다문화가정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문제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통합교육의 필요

센터의 다문화 정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운영되다 보니 현장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관계자들 또한 정책에 대한 혼돈과 수혜대상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교과부는 교육을, 노동부는 이민을, 법무부는 사회통합을... 이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산하 컨트롤 타워를 세워 체계를 갖춰야 해요. 중복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여가부는 회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복수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역차별 논란을 줄여야 합니다. (중략) 포괄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연구 참여자 A-02. 2013.08.06.)

다문화교육센터는 자녀 중심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중심으로 따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교육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지만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를 따로 분리할 수 없는데 교육은 분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통합교육이 필요합니다.

(연구 참여자 A-01. 2013.08.07.)

다문화센터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내가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라면 제일 만들고 싶은 건 애들 교육 프로그램이에요.(중략)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이 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B-03. 2011.10.13.)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이원화되어있는 정책 실시로 센터 관계자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여성들도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는 교육의 주요 대상을 결혼이민여성으로 삼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주요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A-01과 A-02는 다문화가족이 모두 참여 가능한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03을 비롯한 결혼이민여성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즉, 센터 관계자와 결혼이민여성 모두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여건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 형태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3) 재정적 어려움

센터 관계자들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다.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업에 공모를 하고, 이것은 직원들의 행정 업무 과다에도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센터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고 봉사자와 희생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현실적으로 센터는 재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펀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죠. 시에서도 지원도 많이 없습니다.

(연구 참여자 A-02. 2013.08.06.)

정부지원인 많이 부족합니다. 기증이나 직원들이 월급을 반납하거나 센터장의 사비로 일이 진행될 때가 많아요. 사무실 임대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구 참여자 A-01. 2013.08.07.)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은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들은 정부의 예산을 받기 위해 사업공모 참여 등으로 행정적 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A-01의 경우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사비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족한 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 정책 수행자인 센터 관계자들과 정책 수혜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센터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문화교육이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즉, 수요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센터 운영의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 VI. 결론

본 논문은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나타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책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첫째,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이 부재하다. 정부 차원의 다문화 정책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수준에서 머무른다. 제주라는 섬의 지역적·문화적·언어적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지 제주다문화가정센터라는 민간단체에서 제주 방언에 대한 소개가 있었을 뿐 공공기관에서는 제주 방언이나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관광객 증가, 관광지 개발 등 경제적 성장에 맞추어 결혼이민여성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취업 및 창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이 그 가족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제주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대중교통 상황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다문화센터가 있다고 해도 시내가 아닌 시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낮다. 제주 지역 내의 많은 다문화교육 기관들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인 일반 시민들에 대한 교육은 올바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에는 부족하였다. 대부분 문화 체험과 다문화 축제로 일회적인 문화 활동으로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첫째, 센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다문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있는 전문 인력이 더욱 필요하며, 행정적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통합적인 다문화교육이 미흡하다. 그 이유는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여성을, 교육부는 그들의 자녀를 다문화교육정책 수혜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여성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수행되고, 학교 및 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녀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기 별도로 운영되기 보다는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져 지원 예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결혼이민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를 통합적으로 교육함으로써 교육 수혜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센터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센터들이 여러 사업에 공모를 하고 기부금을 받고 있지만, 재정의 부족으로 많은 고충이 있다고 하였다. 현실적으로 재정 부족은 센터 운영상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기도 하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수성이 반영된 다문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다문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다문화교육의 환경으로서 제주 사회는 경제적·문화적·지리적 차원에서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제주 거주 결혼이민여성들의 구직 행위와 학습활동도 제주 지역의 제조업의 낮은 비율과 관련된다. 제주 지역은 제조업체가 적어 결혼이민여성들이 출산 이후 취업하고자 할 때 일자리 확보가 어렵다. 대부분 이들의 일자리는 식당 일이나 감귤 밭 일로 높은 수준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어지지 않아서 구조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제주의 폐쇄적 공동체 문화와 제주어가 지닌 독특함도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장애의 요소이다. 또한 제주 정주민의 노동 및 여가 문화 역시 결혼이민성과

가족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리적 차원에서 제주 지역 사회가 지닌 섬이라는 지리적 고립성과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날로 증가하는 제주 지역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 여성들을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 통합 시스템의 지속적 실천이다. 정부 부처의 중복 사업과 시스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장에서 몸소 일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고충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가족을 어머니와 자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교육을 정부 부처가 나누어서 관리하거나 혼선되어 관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려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제주시 거주 일반 시민에 대한 다문화교육 체제 구축이다.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요즘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지고, 또한 교육현장에서도 다문화교육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시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장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세계 시민성 교육이 아닌 문화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진정한 시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때이다. 이는 민주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주사회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권유하며, 다수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가치는 정의, 평등, 개인 권리의 보호 및 공익의 증진을 포함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동등한 가치와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sup>27)</sup>

민주적인 시민성은 포괄적이며 다원적이어야 하므로 다문화교육과 올바른 시민 교육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계층,

---

27) Campbell, D. E.,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2010, 김영순 외 공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2, 55쪽.

민족, 인종, 종교,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며, 적극적으로 참여적인 시민성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해야만 한다. 경쟁과 개인주의만이 팽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에 일치하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공동체는 각 구성원이 나 자신보다 타인 또는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존속되기 어렵다.<sup>28)</sup> 제주 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소수의 결혼이민여성 혹은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넘어서 일반 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8) Johnson, D. W.·Johnson, R. 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lations*, Boston: Allyn & Bacon, 2002, 김영순 외 공역, 『다문화교육과 인간관계』, 교육과학사, 2010, 386쪽.

## 참고문헌

- 강준혁·남진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제주지역 주민의 인식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1권, 2012.
- 김민호·염미경·변중현 외,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학지사, 2011.
- 김민호·오성배,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제39호, 2011.
- 김분한·김금자·박인숙·이금재·김진경·홍정주·이미향·김영희·유인영·이희영,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제29권 제6호, 1999.
- 김영순, 「이민자 통합을 위한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 연구: 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FGI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제23권, 2010.
- 김종세,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교육정책에 관한 인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48집, 2012.
- 서범석, 「한국의 선진화를 위한 학교다문화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초등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2009.
- 염미경·김규리, 「제주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주, 딜레마와 적응」, 『지역사회학』 제9권 제3호, 2008.
- 오고운·김성봉,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탐라문화』 제39호, 2011.
- 장승심, 「제주지역 다문화 가족의 특징」, 『탐라문화』 제41호, 2012.
- 황갑진,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과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2011.
- 황석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 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제35호, 2009.
- Campbell, D. E.,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 Bacon, 2010, 김영순 외 공역,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교육과학사, 2012.
- Castles, S.·Miller, M. J.,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 Colaizzi, P.,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Inglis, C., *Multicultural education in Australia: Two generations of evolution In The Routledge international compan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edited by: Banks, J. A, New York: Routledge, 2009.
- Johnson, D. W.·Johnson, R. T.,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lations*, Boston: Allyn & Bacon, 2002, 김영순 외 공역, 『다문화교육과 인간관계』, 교육과학사, 2010.
- Mahtani, M., “Interrogating the Hyphen-Nation: Canadian Multicultural Policy and ‘Mixed Race’ identities”, *Social Identities: Journal for the Study of Race, Nation and Culture*, Vol. 8 Issue 1, 2002.
- Troper, H.·Weinfeld, M., *Ethnicity, Politics, and Public Policy: Case Studies in Canadian D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www.liveinkorea.kr](http://www.liveinkorea.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제주다문화교육센터 [www.jmec.go.kr](http://www.jmec.go.kr).

제주시교육지원청 [www.jjse.go.kr](http://www.jjse.go.kr).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www.jejumc.net](http://www.jejumc.net).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http://woman.jeju.go.kr>.



Abstract

## Study on the Multicultural Policy Management of Foreign Immigrant Woman in Jeju Province

Kim, Young-Soon\*·Lee, Mi-Jung\*\*·Choi, Seung-Eun\*\*\*

The acceleration of globalization results in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immigration, so as Korean society. In recent Korean societ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ave actively carried out multicultural policies due to the strong wind of ‘multi culture’. In this process,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at multicultural policy proceeds in a right way. Among many cases, this study analyzes Jeju self-governing Province’s multicultural policy by researching the present condition of Jeju which shows a dramatic change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process of research, there are not only reference study on existing research about present multicultural conditions, but also depth-interview with Jeju’s multicultural center director and foreign immigrant woman. The result divided the policies into content and managerial side, and drew out three problem for each side; policy absence of reflecting regional specialty,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of consumer, connectivity with communities, professional manpower shortage and overwork in centers, integrated educational problem, and finical difficulties. The purpose of

---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tudies, Inha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Multicultural Studies, Inha University.

this study is to develop policy which is able to reflect Jeju's regional specialty beyond the universal and general multicultural policy. We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based on dividing operational and beneficiary group.

Key Words : Foreign Immigrant Woman, Multiculture,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al Educatio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교신 : 이미정 402-020 인천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서호관 422호  
전화: 032-860-8855  
(E-mai : pro03@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3. 08. 30.  
심사완료일 2013. 10. 04.  
게재확정일 2013. 10. 23.